

제1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전 세계 발효식품의 비즈니스 향연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2003년 세계 최초로 발효식품기업 비즈니스 활성화 및 발효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기획된 산업엑스포이다. 발효식품엑스포는 기업, 바이어, 소비자를 모두 아우르는 행사로 지난 12년 동안 총 3,000여 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이 참가하여 총 3,700여 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620억 원의 해외 수출거래 실적을 기록하였고, 최근 5년간 참가업체의 B2C 소비자 현장매출만 144억 원에 달했다. 또한 국제발효컨퍼런스, 세계발효마을연대회의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으로 세계의 우수 식품관련 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발효식품 메카 = 한국이라는 등식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자료제공 |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컨벤션사업부





참가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 개척 지원

발효식품엑스포는 참가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 개척 지원에 주력하여 전문적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지원하고 있다. 2003년 당시 매출 1억 5000만 원이었던 A 장류업체는 발효엑스포 참가를 통해 이름을 알려 5년 만에 20억 원대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여 다양한 거래선을 발굴해 납품하고 있으며, 이외에 많은 참가기업들이 발효엑스포를 통해 판매 루트를 구축, 이제는 국내가 아닌 해외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업체로 성장해 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엑스포 참가업체의 B2B 수출계약 40억 원, B2C 현장소비자 매출은 38억 원에 달했고, 기업과 바이어를 지속적으로 연결시켜 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십여 건의 해외시장 진출 계약을 이끌어 냈으며 홍콩무역발전국, 대만무역센터, 세계한인무역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통한 비즈니스

프로모션 확대를 기업과 기업을 연결한 신상품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발효식품엑스포는 음식에 담긴 가치와 건강, 문화라는 눈에 아우르는 차별화된 기획전시로 참관객들을 사로잡았고, 발효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발효신기술, 안정성, 미생물 등 발효식품의 핵심적인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일조하였으며 세계발효마을연대회의, 외교사절단 교류를 통해 학술, 산업, 문화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과 기업, 기관과 기관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공동발전을 모색해 하는 발효인프라의 중심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전시회로서의 위상 확보

2003년 첫해와 비교하여 참가국 2배(9개국→20개국), 행사규모는 100% 이상 증가하였고, 수출구매상담회와 세미나 등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B2B와 B2C를 총망라한 통합 식품 비즈니스

스의 장을 구축했다. 또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연속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하는 국제인증전시회에 선정된데 이어, 2012년부터 올해까지 4년연속 대한민국 유망전시회에 선정되어 국제전시회로서의 위상과 글로벌 식품전시회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발효식품엑스포는 수천여 개의 발효식품들이 전시되어 바이어와 일반소비자들은 물론, 신상품 발굴과 한국시장 진출, 공동 연구개발 등을 위해 각국의 식품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이 끊임없이 발효식품엑스포를 찾고 있다.

올해 발효식품엑스포는 20개국 350개사의 업체가 참여한다. 국내 기업들로 구성된 퍼블릭홀은 된장, 고추장, 김치, 젓갈 등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발효식품과 더불어 딸기고추장, 보리발효 커피, 아로니아 치즈, 산양





쿠키, 블루베리 식초 등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이색적인 상품들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해외 기업들로 구성된 트레이드홀은 터키의 발효소스와 주류를 비롯해, 맥주, 치즈, 와인, 사케, 살라미 등 각 대륙 20개국의 다양한 발효식품들은 바이어와 참관객의 주목을 끌 예정이다. 또한 특별기획 전시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각종 인증을 통해 지정한 스타팜 농가들로 구성된 스타팜 페어와 전통식품명인전, 전라북도 우수전통주품평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선보이고, 국가식품클러스터, 각 자치단체들의 6차산업클러스터 등으로 이루어진 산업전시관과 신제품과 우수상품을 전시한 2015 IFFE Awards 를 운영한다. 이밖에 B2B 수출상담회를 행사 기간 운영하며 참가업체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발효’라는 콘텐츠로 식품, 문화, 과학, 산업을 접목해 시장을 새롭게 이끌고 있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다 ①

제1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요

기간 2015.10.22(목) ~ 26(월)

장소 전주월드컵경기장 만남의 광장

주최 전라북도, 전주시

주관 (사)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규모 20개국 350개사 400부스(45,000㎡)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한인무역협회, 국제한인식품 및 주류상조연합회

행사

퍼블릭 국내 300개사 기업 3,000여 상품 전시

트레이드홀 20개국 50개사 해외기업 상품전

특별기획전시 스타팜페어, 대한민국식품명인전,

전라북도전통주품평회

B2B무역상담회 15개국 바이어 1:1 수출구매상담회

국제발효컨퍼런스 발효 신기술 향유와 발전방안논의

세미나 FTA 대응, 해외시장 진출, 무역 실무 컨설팅

2015 IFFE Awards 참가기업 신상품 / 우수상품전

세계식품아카데미 와인, 치즈, 사케 쿠킹클래스

교육체험프로그램 각종 발효식문화체험교육,

백일장경연, 거리이벤트

문의 (사)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전화번호 063-272-6988

홈페이지 www.iffc.or.kr